

2019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④	2	②	3	①	4	④	5	①
6	③	7	⑤	8	⑤	9	⑤	10	②
11	③	12	⑤	13	④	14	①	15	②
16	④	17	⑤	18	①	19	③	20	④
21	②	22	①	23	④	24	③	25	①
26	⑤	27	④	28	⑤	29	⑤	30	③
31	①	32	②	33	②	34	②	35	②
36	①	37	③	38	⑤	39	②	40	④
41	③	42	⑤	43	③	44	③	45	①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강연자는 강연을 시작할 때, 청중에게 지난 체험 학습 때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했던 것을 기억하는지 질문하고 있다. 이처럼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한 후, 조선 시대에는 천체 망원경이 없었음에도 하늘을 관측해 기록했다는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또한 4단락에서도 체험 학습 때 별자리와 북극성을 보았던 경험을 환기하는 질문을 한 후 북극성을 중심으로 작은 원이 그려져 있다는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은 중성기이다. 강연자는 중성기 중앙에 표기된 ‘天’을 언급하며 중성기가 별의 위치로 밤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성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③ ㉡은 성도 중앙부이다. 강연자는 이를 확대해 보겠다고 하며 ㉢ 안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작은 원이 있고, 이것이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관측 가능한 하늘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제시했다. ④ ㉢은 성도 외곽 경계선이다. 강연자는 화면을 확대하며 경계선 안의 두 별을 예로 들어, 별의 크기 차이가 밝기의 차이를 나타냄을 언급했다. 또한 이것이 동시대 중국 천문도와 다른 점임을 제시했다. ⑤ ㉢은 성도 아랫부분의 설명이다. 강연자는 이 설명들 중 ‘천문을 ~본다는 것’이라는 부분을 인용하여 하늘을 받들어 선정을 베풀기 위해 천문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뜻을 제시했다.

3.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 1은 천체 망원경 없이 하늘을 관측한 방법이나 ‘자’와 ‘분야’의 구획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강연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 학생 2는 강연에서 ‘남중’, ‘중성’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학생 3은 태조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보를 중요시했다는 배경지식을 활용해 이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하늘을 관측한 방법과 ‘자’, ‘분야’의 구획 기준을, 학생 2는 ‘남중’, ‘중성’의 의미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학생 2는 조선 시대에 별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천문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학생 3은 천문이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4. [출제의도] 발화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의 바로 앞 발화에서는 작년에 진행된 독서 대화에

서 개선할 점으로 화제가 잘 맞지 않아 대화가 산만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은 이에 대해 자신이 작년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점에 동의하는 것을 나타내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 발화이다. 이는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발화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작년 독서 대화에 학생들의 참여가 적었던 근거를 듣기 위해 ㉠에서는 작년의 홍보 방식이 실제 어땠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⑤ 문제점을 짚는 발화를 마무리하며 ㉢에서 이제부터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는 말로 토의의 진행을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다.

5. [출제의도] 담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한다.

[A]에서 학생 2가 선정 도서를 논점으로 한 독서 대화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자, 학생 3이 앞서 제시한 의견이 지닌 한계를 언급하며 새로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B]에서 학생 3이 화제를 서로 맞추기 위한 방안을 논점으로 한 독서 대화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자, 학생 2는 앞서 제시한 의견이 지니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A]에서는 학생 3이 상대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는 학생 2가 상대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6. [출제의도] 글에 반영할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나)의 2문단에는 독서 대화를 위한 도서가 이미 선정되어 있다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3문단에는 선정된 세 권의 도서 중 한 권을 신청서에 기입하라는 안내가 있으나, 선정할 도서의 분야를 제시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의 2문단에는 작년과 달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려고 세 권의 도서를 선정했다는 내용이 있다. ⑤ (나)의 4문단에는 독서 대화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한 소감이 제시되어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을 참고하여 글의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학생 1은 안내문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추가하며 참여를 독려하자는 제안을 하고, 학생 3은 안내문의 마지막 부분에 함께 독서 대화에 참여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드러내자고 말하고 있다. ⑤에서 ‘한 권의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넓고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은 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추가하자는 조건에, ‘함께한 경험은 학창 시절의 뜻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내용은 독서 대화에 참여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드러내자는 조건에 해당하여 ㉢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에서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친구들도 있다고 하였다. (다)에서 ㉢을 고려하여 디지털 흔적을 삭제하는 기술의 한계를 제시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을 고려해, 1문단에서 디지털 흔적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에서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을 고려해, 2문단에서 잊힐 권리의 개념을 A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③ ㉠을 고려해 2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치 않는 개인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④ ㉢을 고려해, 5문단에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소개한 후, 이 권리들

보다 개인의 존엄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의 초고 4문단에서 ㉢을 일반화하여, 과거와 달리 인터넷 공간에 개인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을 토대로, 5문단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잊힐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② ㉢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2문단에서 원치 않는 개인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③ ㉢의 내용을 찾아, 3문단에서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소명할 경우에 정보 삭제 및 차단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④ ㉢을 참고하여, 3문단에서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정보 삭제 또는 차단 조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제재할 조항이 없고, 사생활 침해로 소명하기는 어렵지만 삭제하고 싶은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삭제할 법적인 방법이 없음을 제시하였다.

10. [출제의도] 비판적 관점에서 반박하는 글을 쓴다.

<보기>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개인적 기록들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A]에서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 공간에 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쓴다면, 잊힐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경우 공익을 위한 정보들까지 삭제되어 결국 공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겨야 한다.

[오답풀이] ① 사적 자료를 개인의 인성 검열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보기>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며, [A]와 유사한 입장에 해당한다. ③ 디지털 흔적을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기>에서 근거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디지털 흔적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은 [A]와 유사한 입장에 해당한다. ④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에는 도덕적 책임 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기>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며 [A]에 대한 반박으로 보기 어렵다. ⑤ 매체의 발달에 따라 개인적인 기록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져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기>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며, [A]와 유사한 입장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한다.

‘뱌힌’은 ‘ㅂ’과 ‘ㅎ’이 ‘ㅍ’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나 [발편]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술한’은 ‘ㄷ’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나 [수탄]으로 발음된다. ‘뱌힌’, ‘술한’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전체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게 된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자료를 탐구한다.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이다. b의 ‘뫼’이나 c의 ‘ㅁ슴’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인데, 이들은 관형절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a의 ‘호닐[호-+-오-+-ㄴ+을]’에서 조사 ‘을’이 어미 ‘-ㄴ’ 바로 뒤에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a의 ‘호닐[호-+-오-+-ㄴ+을]’은 ‘한 것을’으로 해석된다. ‘-ㄴ’은 ‘~ㄴ 것’으로 해석되며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b의 ‘비켈[비취-+-ㄷ]’에서 ‘-ㄷ’을 통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미래 시제가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b에서는 ‘늦’, c에서는 ‘ㅁ슴’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임을 확인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관형절을 분류한다.

‘힘찬’(㉠)은 ‘합성이 힘차다.’로부터 만들어진 관계 관형절이다. 수식을 받는 체언 ‘합성’이 관형절 속에서 주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이 조사한’(㉡)은 ‘형이 자료를 조사하다.’로부터 만들어진 관계 관형절이다. 수식을 받는 체언 ‘자료’가 관형절 속에서 목적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전복된’(㉢)은 ‘자동차가 전복되다.’로부터 만들어진 동격 관형절이다. 그리고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관형절이다. ‘내가 그 일을 한다는’(㉣)은 ‘내가 그 일을 한다.’로부터 만들어진 동격 관형절이다. 그리고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형절이다.

14. [출제의도] 단어의 품사를 이해한다.

ㄱ의 ‘그곳’은 어떤 처소를 지시하는 대명사에 해당하지만 ㄴ의 ‘그’는 어떤 처소나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의 ‘그곳’은 지시 대명사, ㄴ의 ‘그’는 지시 관형사이다.

[오답풀이] ② ㄱ의 ‘아주’와 ㄴ의 ‘잘’은 모두 용언 앞에 놓여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에 해당한다. ③ ㄱ의 ‘구울’(굽다)은 ‘ㅂ’ 불규칙 용언, ㄴ의 ‘지어’(짓다)는 ‘ㅅ’ 불규칙 용언이다. 즉 ㄱ의 ‘구울’과 ㄴ의 ‘지어’는 모두 용언의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동사에 해당한다. ④ ㄱ의 ‘쉽게’(쉽다)와 ㄴ의 ‘멋진’(멋지다)은 모두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⑤ ㄴ의 ‘가’는 주격 조사, ㄴ의 ‘에서’는 부사격 조사이다. ㄴ의 ‘가’와 ㄴ의 ‘에서’는 모두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남북한의 국어사전을 비교한다.

(가)의 ‘대로¹⁰-(1)’은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의 ‘대로⁶-(4)’는 ‘서로 구별되게 따로따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둘을 비교해 볼 때, 두 말의 쓰임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대로¹⁰’의 용례인 ‘범대로’, ‘큰 것대로’, (나)의 ‘대로⁶’의 용례인 ‘명령대로’, ‘펼쳐놓은대로’, ‘생각나는대로’, ‘그들대로’의 띄어쓰기를 볼 때, 모두 ‘대로’를 앞말과 붙여 썼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대로¹’은 의존 명사, ‘대로¹⁰’은 조사, (나)의 ‘대로⁶’은 불완전 명사(의존 명사)임을 볼 때, 모두 문장의 첫머리에 쓰일 수 없는 말임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대로¹’, ‘대로¹⁰’과 (나)의 ‘대로⁶’은 모두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 말임을 알 수 있다. 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길을 가다.’의 ‘대로’는 (가)와 (나)의 뜻풀이와 용례를 고려할 때, (가)에서는 조사, (나)에서는 명사임을 알 수 있다.

[16~18] (현대시) (가) 백석,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 (나) 송수권, ‘대숲 바람소리’

(가) 백석,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화자는 먼 옛날 우리의 영토였던 만주 지역에서 명멸했던 국가와 민족들을 떠올리며 시상을 열고 있다. 그곳은 우리 민족이 고구려, 발해 등을 건국하며 크게 번성했던 곳이다. 따라서 화자가 ‘나는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에 살았던 우리 민족이 떠났을 때를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광활한 영토를 잃어버렸음에도 소박한 안위와 행복을 찾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소극적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일제의 지배를 받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화자는,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며 북방에 가 있

다. 자신의 뿌리가 담긴 우리의 옛 영토에서 민족의 자취와 영광스러운 역사를 찾고자 하지만 이미 세월과 함께 지나가서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송수권, ‘대숲 바람소리’

화자는 남도의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통해 역사 속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대나무 바람 소리는 동학 운동의 저항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고단하고 힘든 삶을 꺾꺾하게 견디며 살아온 민중의 정신과도 연결이 된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고단하게 살아온 민중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작품이다.

16.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의 반복을 통해, (나)는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등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시공간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서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마지막 연의 ‘눈 그쳐 뜨는 새벽별의 푸른 숨소리, 청청한 청청한/ 댓잎파리의 맑은 숨소리.’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는 각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자아내고 있으나 (가)는 각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는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보기>는 두 작품의 시적 화자가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을 떠올리고 있음에 주목해서 감상한 것이다. (나)의 4연에서 ‘몽당 빗자루’, ‘보리송넉’, ‘문둥이 장타령’ 등은 민중의 남루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민중들이 품고 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가)의 2연은 주변 자연물들이 우리 민족을 떠나보내며 슬퍼했을 정황과, 북방의 소수 민족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했을 장면을 화자가 상상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3연에서는 ‘슬픔과 시름도 없이’, ‘게을리’ 광활한 영토를 잃고 축소된 ‘먼 앞대’로 떠나는 상황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6연은 우리 민족의 옛 땅인 북방에 간 화자가 떠올린 상실의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다. ④ (나)의 3연은 동학 운동에 참가한 민중의 열정과 합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수탈과 억압에 맞서고자 했던 저항 정신이 대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담겨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아득한 넷날’은 우리의 광활했던 영토를 잃은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아득한 새 넷날’은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으로 변주되는 것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오백 년 한숨’은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온 민중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마지막 연에서 ‘푸른 숨소리’로 변주한 것은 그러한 민중의 삶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9~21] (고전소설) 작자 미상, ‘양풍전’

이 작품은 전반부에서는 가정 소설적 성격을, 후반부에서는 영웅 소설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부는 채옥 남매의 모친이 죽고 처첩 간의 갈등으로 채옥 남매가 모친이 있는 옥룡전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는 무술을 연마한 풍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서모가 응징당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채옥 남매는 양태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다. 뜻밖의 일을 당하며 채옥 남매는 망극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할미’가 있는 ‘영산으로 갈밖에 없다.’ 생각하고 영산에 간다. 그러나 ‘할미’는 이미 죽은 후였다. 이에 흥격이 막혀 모친 묘하에 가 통곡을 한다. 의지할 곳이 없게 된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모친 묘하에 가서 슬픔을 토로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채옥은 화관과 황포를 통해 후토부인에 대해 거룩한 느낌을 받았지만 후토부인이 누구인지는 몰랐다. 채옥은 후토부인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후토부인이 산신인 것을 깨닫고 있다. ② 범으로 나타난 신령은 채옥 남매의 정성을 시험코자 했다. ④ 채옥은 십여 세의 나이로 옥룡전을 찾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지하에 가 모친을 뵈옵만 같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동생들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자결하고자 했던 마음을 고쳐먹고 있다. ⑤ 석불은 채옥 남매가 자신의 말대로 행하면 옥룡전에 이르러 모친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고려해 작품을 감상한다.

‘채옥 등’은 모친이 있는 옥룡전으로 가는 중이다. 이 여로에서 ‘석불’로부터 옥룡전에 이르고자 하는 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지, ‘석불’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행한 행동으로 ‘석불’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석불’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행한 행동으로 ‘채옥 등’이 ‘석불’의 인정을 받은 것을, 정성이 지극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서민들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옥룡전’은 ‘누만 리’ 떨어져 있어 득달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것은 천상계가 인간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르기 힘든 곳임을 나타낸다. ② ‘채옥 등’은 후토부인이 제공한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 ‘죽게 된 인생을 선찬으로 먹이시고’라고 말하고 있다.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것이다. 그리고 ‘채옥 등’은 ‘범’으로부터 ‘실과’를 받아먹고 정신이 쇠락해지고 있다. ‘음식’과 ‘실과’는 모두 ‘채옥 등’에게 여로를 마치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작품에서 환상성이 여로의 난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모친이 나타나 옥룡전으로 오라고 한 꿈을 계기로 채옥 남매는 옥룡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⑤ 채옥이 꿈에서 ‘석불’로부터 받은 ‘낙화’를 ‘석불’이 알려준 대로 사용하자 돌문이 열리고 있다. 이것은 환상성이 현실성과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21. [출제의도]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C]에서 ‘가다가 길에서 죽사와도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라고 한 것은 모친을 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석불’을 만났을 때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C]에 대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느낀 한이 표출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는 채옥 남매가 낫선 곳에 이르러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③ [A], [B]에는 서모인 송녀와 채옥 남매의 갈등 관계가 나타나 있다. ④ [A], [B]에는 채옥 남매가 겪은 일이 요약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⑤ [A]의 ‘바라건대 어여빠 여기사 앞길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이다.’라는 청에서 모친을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C]에서도 모친을 뵈기를 바라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22~25] (과학) 두하영, 엄정희, 이해정 외, ‘양안시 - 이론과 실제’

사람은 6cm 정도 떨어져 있는 두 눈으로 물체를 바라

본다. 두 눈의 망막에 맺힌 물체의 상은 동시에 뇌로 전달되어 시각적 인상으로 평가된다. 이때 두 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체를 바라보려면 각각의 눈이 물체로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눈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눈 운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게 된다. 복시는 물체의 상이 한쪽 눈에는 망막의 황반에 맺히고 다른 쪽에는 황반을 벗어나 맺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증상은 빛의 굴절을 일으키는 프리즘 렌즈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이때 활용되는 프리즘 렌즈의 꺾임각은 스넬의 법칙에 따라 소재의 굴절률과 프리즘의 꼭지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3문단에서 미터각은 물체까지의 거리에 대한 역수로 표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터각은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며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눈 운동은 눈알 바깥에 붙어 있는 4개의 곧은근과 2개의 빗근이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 눈알 전체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거나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생리적 복시는 피로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다고 하였으며, 6문단에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6문단에서 프리즘은 두 개 이상의 평면이 일정한 각을 이루는 투명체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는 오른쪽 눈의 주시선이 귀 쪽으로 편위되어 있다. 만일 ○○의 눈이 복시가 아니라면 두 눈의 폭주량은 6.4△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교정을 하더라도 폭주량이 6.4△보다 커질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굴절률이 4.2라면 여기에서 1을 뺀 값과 꼭지각을 곱한 값이 3.2△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꼭지각은 1△이다. ② 꺾임각은 굴절률에서 1을 뺀 값에 꼭지각을 곱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굴절률이 크다면 꼭지각을 작게 할 수 있다. ③ 1m 떨어진 거리에서 3.2cm 편위되어 있으므로 꺾임각 3.2△인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한다면 물체의 상을 황반에 맺히게 할 수 있다. ⑤ 오른쪽 눈이 귀 쪽으로 편위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교차성 복시에 해당한다.

24. [출제의도] 핵심 원리를 이해한다.

왼쪽 눈이 비교차성 복시라면 주시선이 코 쪽으로 편위된 경우로, 이 경우 물체의 상은 황반보다 코 쪽에 맺히게 된다. 따라서 실제 위치보다 왼쪽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오답풀이】 왼쪽 눈이 교차성 복시라면 귀 쪽으로 편위된 경우로, 이 경우 물체의 상은 황반보다 귀 쪽에 맺히게 된다. 따라서 실제 위치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25.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눈 운동은 눈알 바깥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 눈알 전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회전시키는 것인데, 눈 운동을 통해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게 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④ 눈 운동을 한다고 하여 동공중심거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26～29] (현대소설) 박영한, ‘지상의 방 한 칸’

‘지상의 방 한 칸’은 가난한 생활로 인해 겪는 예술가의 정신적 위기와 방향을 그린 자전적 성격의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나’는 조용히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떠돌게 되는데, 방 한 칸마저도 구하기 힘든 상황은 예술가의 존립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애초에 품었던 소설가로서의 야심과 의욕적인 기획이 어

떻게 변색되고 좌절되는지를 고백적인 육성을 통해 보여 준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사랑과 그 진정한 초월이 예술가 본연의 소임임을 깨닫고 있는 ‘나’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고투하는 과정을 함께 보여 줌으로써 예술가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 준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을 고백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처한 작가로서의 심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사건의 전개에 따라 공간적 배경의 변화는 나타나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27.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나’는 ‘유 형’이 ‘상식인들’과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상식인들’과 상대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나’가 짐작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사르트르도 무엇도 아닌 어중간한 것’은 소설가로서 가졌던 야심과 애초의 계획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작가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② ‘아랫마을 출입’, ‘쓸데없는 술추렴’, ‘송아지 자랑’ 등은 모두 창작과는 거리가 먼 행위들로, ㉠은 ‘나’가 글을 쓰는 일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천방지축 출판사로, 기업체로, 신문 연재로, 대학원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은 모두 끼니에 털미를 잡힌 문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은 대작의 꿈 대신에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 문인들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⑤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는 ‘유 형’이 추구하는 가치로 볼 수 있는데, ‘유 형’은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정에 놓인 ‘구질구질한 지상의 눈물’, 즉 고통을 외면해 버려야 한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은 그러한 ‘유 형’의 태도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8. [출제의도] 주어진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다.

주인공이 친구에게 고통에 대한 사랑과 초월에 대하여 들려줄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것은, 자신부터가 충분한 신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이 정지적인 격변의 상황을 외면해 버린 데서 오는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군더더기로 여성지의 연재 원고 매수나 채우고 있다는 것은 예술가로서의 치열성이 희석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머릿속에 든 이미지가 박살나는 등 창작에 집중하기 어려운 불들네에서의 생활은 주인공이 소설가로서의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이 여름내 땀 흘리며 보낸 시간들은 주인공이 작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려 노력한 고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전자오락실’, ‘TV의 스포츠 화면’ 등은 소설에 대한 기대를 잃은 대중이 몰려들고 있는 것들로, 예술가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반복된 표현의 연결된 의미를 이해한다.

㉠은 주인공이 창작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 단순히 집 주변의 분위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글을 쓸 수 없는 것이 쓸모없는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에서 또

그것은 자기만이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문학 종사자들의 야심을 잠재워 버리게 한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와 ㉢를 연결하여 제시한 것은, 자신의 창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인물의 인식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0～35] (사회기술 복합) 김병수 외, ‘연관성 분석’

연관성 분석은 수집한 자료 안에 존재하는 품목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을 이른다. 연관성 분석의 주요 측도 중 지지도는 전체 구매에 대해서 조건과 결과에 있는 품목들이 함께 구매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 신뢰도는 조건의 구매가 발생했을 때 결과의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다. 향상도는 어떤 연관 규칙에 대하여 조건 없이 결과가 일어날 확률보다, 조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알려 준다. 한편 연관성 분석은 사건들의 발생 순서를 고려하지 않지만, 시차 연관성 분석을 하면 선후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30.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1문단에서 많은 양의 자료가 생성·축적되는 현대 사회에서 연관성 분석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연관성 분석의 시대에 따른 변천 과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② 6문단에서 시차 연관성 분석의 특징과 연관성 분석에 필요한 두 요소를 밝히고 있다. ④ 5문단에서 연관성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지지도 가지치기를 제시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5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연관성 분석에서 분석하려는 품목의 수가 늘어나면 연관 규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분석하려는 품목을 상위 품목으로 일반화하는 방법은 연관 규칙의 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최소지지도 가지치기 방법 중 하나이다.

【오답풀이】 ② 5문단에서 최소지지도 가지치기 방법으로 지지도가 낮은 품목을 분석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3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휴지→우유’의 신뢰도가 100%라는 것은 ‘휴지’를 구매한 모든 경우에 ‘우유’를 구매했음을 의미한다. ‘우유’를 구매한 경우에 ‘휴지’를 구매한 경우, 즉 ‘우유→휴지’의 신뢰도는 2/4이다.

【오답풀이】 ① ‘빵→생수’의 지지도는 2/5이고, ‘빵→휴지’의 지지도는 1/5로, 전자가 후자보다 높다는 것은 ‘빵’과 ‘생수’를 함께 구매한 경우가 ‘빵’과 ‘휴지’를 함께 구매한 경우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생수→빵’과 ‘생수→우유’의 신뢰도는 모두 2/3이고, ‘생수→휴지’의 신뢰도는 1/3이다. ④ ‘X→Y’와 ‘Y→X’의 지지도는 같으므로, ‘우유→생수’와 ‘생수→우유’의 지지도가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빵→세제’의 신뢰도는 2/4이고, ‘세제→빵’의 신뢰도는 2/2이다.

33. [출제의도] 핵심 정보의 구체적 사례를 파악한다.

ㄱ은 특정 환자가 순차적으로 두 종류의 병을 앓았던 사례들을 분석하여, ○○ 질환을 앓았던 환자가 □□ 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연관성을 밝혀낸 경우이다. ㄴ은 TV를 산 고객이 재방문하여 고성능 스피커를 샀던 사례들을 분석하여, TV를 산 고객이 이후에 고성능 스피커를 산다는 연관성을 밝혀낸 경우이다. ㄹ은 회원들이 A, B, C 등의 웹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였던 사례를 분석하여 웹 페이지 방문에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연관성을 밝혀낸 경우이다.

【오답풀이】 ㄴ은 라면과 계란의 판매대를 붙여 놓은

경우와 때어 놓은 경우의 각 판매량을 파악하여 판매대의 거리에 따른 두 품목의 연관성을 분석한 경우로, 사건의 발생 순서를 분석의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3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㉔의 연관 규칙에서 B를 구매했을 때 C를 구매할 확률인 신뢰도는 35.3%이고, 전체 거래에서 C를 구매할 확률인 기대 신뢰도는 40.0%이다.

[오답풀이] ① ㉔의 연관 규칙에서 기대 신뢰도는 42.5%이고, ㉔의 연관 규칙에서 기대 신뢰도는 45.0%이다. ③ ㉔의 연관 규칙에서 신뢰도는 35.3%로, 이를 음의 연관 규칙으로 바꾸었을 때 신뢰도는 64.7%(100% - 35.3%)가 된다. ④ 연관 규칙을 마케팅 전략에 바로 적용하여 활용하기에 유용한 정도를 알려 주는 측도는 향상도로, ㉔의 향상도는 1.308이고 ㉔의 향상도는 0.883이다. ⑤ ‘A → C’는 ‘C → A’의 음의 연관 규칙이 아니라 ‘고객이 A를 사면 C를 산다.’는 연관 규칙을 표현한 것이다.

35.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㉔의 문맥적 의미는 ‘계획, 방안 따위를 정하거나 짜다.’로, ②의 ‘세우다’도 이와 유사한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어떤 역할을 맡게 하다.’의 의미이다. ③ ‘공로나 업적 따위를 이룩하다.’의 의미이다. ④ ‘무딘 것을 날카롭게 하다.’의 의미이다. ⑤ ‘질서나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짜다.’의 의미이다.

[36~40] (고시 복합) (가) 정확유, ‘농가월령가’ / (나) 작자 미상, ‘관동가’ / (다) 현기영, ‘신생’ (가) 정확유, ‘농가월령가’

이 글은 음력 1월에서 12월까지 각 달에 해야 할 농사일과 절기에 따른 세시 풍속을 담고 있는 월령체 가사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 지식인들(향반)이 농민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고 유교적인 윤리 덕목을 권계하려는 목적으로 창작하였다.

(나) 작자 미상, ‘관동가’

이 글은 ‘정월 상원일’, ‘사월 초파일’ 같은 각 달의 절일(세시 풍속의 명절)을 기준으로 세시 풍속을 소개하면서 부채하는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각 달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입은 어디 가고 ~줄 모로난고’라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이별의 정한을 부각하고 있다.

(다) 현기영, ‘신생’

이 글은 글쓴이가 봄을 맞이하여 떠올린 신생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쓴 수필이다. 글쓴이는 신생을 노란색의 이미지와 병아리, 여린 새싹 등의 생명력과 연결하고 있다. 날개를 퍼 새끼들을 보호하는 어미 닭의 모습에서 궁핍한 시절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던 어머니의 모성애를 떠올리고, 널리 알려진 소설 「데미안」의 내용을 인용하여 태어나는 것들의 생명력을 부각하는 방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가)는 ‘선선한 조석 기운 추기가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백곡의 이삭 패고’ 등의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나무마다 춘기 들고 잔디잔디 속입 나니’, ‘이화도화 만발하고 행화방초 훗날린다’ 등의 표현을 통해 봄의 계절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는 봄을 맞이하여 떠올린 신생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체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봄 병아리’, ‘노란 봄빛’, ‘봄기운’, ‘봄의 햇살’ 등의 소재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A]의 화자는 사월 초파일에 자신이 바라보는 다양한 등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 [B]의 글쓴이는 부화

하거나 병렬 현상이 발생할 때 시각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청각적으로 소리가 나는 달걀과 얼음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의 화자는 지상에서 다양한 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B]의 글쓴이도 천상의 사물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의 화자는 부채하는 입을 그리워하며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는 것이지, 재회를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B]의 글쓴이도 부화를 기대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④ [A]의 화자는 관동을 위해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지,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⑤ [A]의 화자는 부채하는 입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때문에 세시 풍속인 관동의 행사를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처지이므로, 타인과 단절된 상황에서 고독감을 느낀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B]의 글쓴이가 직접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고 만족감을 느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㉔는 봄을 맞아 강남에서 제비가 날아오고, 기러기가 떠나는 계절적 정황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별의 정한을 해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나)의 각 달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입은 어디 가고 ~줄 모로난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화자의 한과 슬픔은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㉔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민들에게 수확과 관련한 농사일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② ㉔는 잘 익은 밤을 모아 말려서 나중에 필요한 절에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③ ㉔는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위해 수의를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효의 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나이 많은 부모님의 수의를 준비하는 관습은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다. ④ 정월 상원일의 ‘답교’는 화자가 그 풍속을 즐기는 소년들의 행락(行樂)을 부러워하며, 부채하는 입을 떠올리는 상사의 매개가 되고 있다.

39.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다)의 글쓴이는 ㉔과 관련해 ‘노란 털복숭이 봄 병아리’를 떠올리고 있다. ㉔은 가을에 곡식이 익은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회상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㉔은 현재 곡식이 익은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③ ㉔과 ㉔에 화자가 내적 갈등을 느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㉔과 ㉔에서 인생의 무상함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㉔과 ㉔에 종교적 깨달음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다)의 글쓴이는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생명력을 발휘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라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오답풀이] ③ ‘매운바람’이 몰아칠 때 날개를 퍼서 새끼들을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의 모습은 모성애와 관련이 있다.

[41~45] (인문) 장태순, ‘알랭 바디우’

이 글은 현대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철학적 견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디우는 ‘사건’을 계기로 ‘진리’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건이란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일이며서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진리란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이자 사회 안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들의 집합체이며,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이 ‘주체’이다. 바디우는 사건, 진리, 주체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진리 그 자체는 아니고,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건보다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진리를 좇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 안의 요소들을 진리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글은 바디우의 철학적 개념을 소개하면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 자세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3문단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안의 제도, 행위, 발언 등을 검토하여 그것이 사건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바디우는 개인이 사회 안의 제도나 행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사건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지만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④ 4문단에서 ‘바디우에게 있어 진리란 거짓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5문단에서는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진리 절차라고 언급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2문단에서 ‘사건은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6문단에서 바디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보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고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바디우에 따르면 사건을 계기로 진리가 만들어지고, 진리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사건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발점이자 사회 구조 변화의 출발점인 것이다.

4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바디우는 ‘진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신이 곧 주체는 아니며, 그 사람의 행위나 발언 중 사건에 충실한 것만이 주체의 일부’라고 본다. 이러한 바디우의 시각이 개인을 보잘것없게 만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 바디우의 시각은 개인의 행위나 발언 등이 정치적 주체의 일부이면서 예술적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즉 바디우는 개인을 다수의 진리 절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4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바디우는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파리코뮌을 사건의 대표적 예로 들었다. 바디우에 의하면 사건은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파리코뮌이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합한 파리 시민들이 지속적인 시도를 한 결과로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바디우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 그가 강조하는 용기는 진리를 좇는 용기이다.

45.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㉔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㉔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라는 뜻을 가진 ‘구성한다고’로 바꾸어 쓸 수 있다.